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공동생활 기념주일입니다.
공동생활 2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 사순절 연속기도는 18일(월) 0시부터 30일(토) 24시까지 입니다. 첫 번째 주간은 멋쟁이 학생들 중심으로, 두 번째 주간은 어른들 중심으로 기도시간표에 미리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저녁에 모이는 찬양 잔치를 방별로 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제 43차 공동체운영위원회 임시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자연예배당에서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가 3월 11일~13일, 양평으로 개학여행을 떠납니다.
- 3월 17일(일) 오후 3시, 1학기 사랑방공동체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생활공동체 26주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공동생활 기념주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0 호

2024년 3월 10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용서

진정한 죄 용서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죄를 용서하지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엡1:7, 골1:14). 종교개혁 당시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가톨릭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죄를 '용서'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이 죄를 용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아주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양심에 걸릴 것도 없고요.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입니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서로 평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집니다(마 5:23-24).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다면 함께 기도를 하거나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갈등을 풀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삶이나 결혼은 그렇게 지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바로잡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원한을 계속 품으면 하나님께 가는 문은 닫혀 버릴 것입니다.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 6:15).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용서받기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약5:16)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죄 용서가 성령을 통해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선포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날이 귀신과 사탄을 이기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형제애의 삶을 살고, 불에 타 순교자가 된다면

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노력은 모두 헛됩니다.(계1:5-6). 죄 용서는 우리를 사랑 하셔서 당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 된 교회 안에서 용서를 선언하지만, 용서는 천국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용서 안에 있는 속죄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이는 살아 있는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한 바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무죄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상징인 아벨의 피보다 더 크게 우리 안에서 울립니다. 살인자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비난의 피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용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습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날카로운 경고도 분명히 받았습시다. 새로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시다. 서로의 약점을 알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살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골 3:15).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합니다. 영혼은 평화를 원하며 신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보낸 마지막 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7).

우리에게는 본래 평화가 없습니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부름을 받았습시다. 그분은 당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하나 되어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서받을 기회를 줍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 궁극적으로는 온 창조물을 위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 하인리히 아놀드의 "공동체 제자도"에 "용서"부분에서 발췌.

한주간의 말씀

“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
< 로마서 12장 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95 134 288

기도 : 이윤희 권사

성경 : 마태복음 4장

제목 :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다

1. 내용: 예수께서 공적 사역을 준비하셨다. (What)

<문단구분>

1~11절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12~17절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다>

2. 의미: 공적 사역은 어려움을 동반한다. (Why)

1)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내맡길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다.

2)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다.

3)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3. 적용: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자 (How)

1)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두텁게 하자.

2) 원망의 마음을 조심하자.

3)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사랑방공동체와 최가족

저희 가정이 사랑방공동체와 관계를 맺기 시작된 것은 2005년, 예수원에서 열린 공동체 모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 안수받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공동체에 살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도 했지만, 예수원에서의 생활은 교단에서 목회자 훈련 과정으로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상황을 들으신 정 목사님과 사랑방교회는 저를 사랑방 목회자로 초청하셨고, 2017년 예수원을 떠나기까지 협동목사로 사랑방 가족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2018년엔 한국 브루더호프 공동체 가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무림리로 이사를 하면서, 목회자로 12년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분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새싹사랑방에 속해서 방모임 하는 것을 돌아보면 ‘참 신기하다’ 싶습니다. 공동체의 부르심이 예수원일 때도, 지금 브루더호프일 때도 사랑방은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서,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원에서는 2015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고, 브루더호프에서는 2020년 100주년을 맞았고, 2024년 사랑방에서는 40주년을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나온 공동체 삶을 비추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계속 당신의 나라로 삼아 가시겠다는, 보이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세우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는 조직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어 나가고자 하는 보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이 놀라운 시간대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디모데전서 6 : 14-15 인도자
2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스가랴서 8 : 16 인도자
95, 405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 정재훈 목사

로마서 12 : 1-10 설교자
432 생활공동체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49 다함께
인도자
438(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김병우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더 채워주십시오.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 제자들은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분부하신 말씀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 있으라는 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있던 사도들과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공동생활은 처음 교회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사도 바울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요청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시대를 거스르는 일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데는 어려움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탁대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재신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새 단장을 마치고 드디어 꾸러기 친구들의 신나는 24년 새 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선 화요일에 꾸러기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아 입학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 나온 친구들은 몸이 근질근질한지 친구들을 만나자마자 뛰어 놀기를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지만 예배 시간에는 의젓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도 열심히 듣고, 장난치는 친구가 한 명 없어 깜짝 놀랐습니다.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이 준비하신 간식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은 예쁜 장화였습니다. 장화를 받은 친구들이 바로 신어보는데 올해는 눈과 비가 아무리 와도 씩씩하게 잘 지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신입생이 안 들어와 작년에 다닌 4명에 친구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숫자는 4명이지만 작년보다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4명입니다. 목소리는 자연예배당 천장을 뚫을 것 같이 우렁차고, 몸은 뛰면서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쁩니다. 새롭게 적응할 친구들이 없어서 처음부터 마음모아 다 같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마음은 모으지만 새로운 모습과 놀이들에 올해가 벌써 기대가 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하늘엔 예쁜 구름이 뭉게뭉게 떠 있고 좀 춥지만 바깥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학교를 덮는 시간이었습니다.

3월 4일 월요일 개학을 하며 14시에 교육관에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1학년 이가람, 3학년 이수현의 입학에 사랑이 듬뿍 담긴 축복송과 말씀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앞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셔

셔서 서로 어울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해 주십시오.

방학동안 그리웠다는 식사 시간엔 얼마나 많이 먹는지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답니다. 잘 못 먹던 음식도 골고루 잘 먹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어린이학교 개학여행이 3월 11일(월) ~ 3월13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개학여행이 있습니다. 남양주 정약용 편그라운드에서 숙박하며 재미난 팀별 게임도 하고, 공연도 보고, 산책도 하며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여행 이후 첫 주간을 보냈습니다. 새 학기의 시작은 어딘가 낯선 분주함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하면서도, 익숙한 설렘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시간표에 맞추어 멋쟁이들은 수업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가늠해갔습니다. 특히 신입생과 편입생은 하나하나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 투성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번 열린수업 시간에는 멋쟁이 교양을 통해서 삼정생활 등 정체성과 리더십을 훈련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공동심화학습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이란 제목으로 정태일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시국에 맞추어 멋쟁이들에게 멋진 배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에 멋쟁이 학생회 정기 총회에서는 1학기의 새로운 회장으로 5학년 김주은 멋쟁이, 부회장으로 조혜린 멋쟁이가 선출되었습니다. 구 임원과 신 임원이 마주하고 박수속에서 바톤터치 하는 모습은 사뭇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멋쟁이들의 대표로서 좋은 생활을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공동생활기념주일 맞이 지킴이

공동생활 26주년 기념주일 맞이로 교회 지킴이와 공동식사준비를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든든히 입고 오시라는 친절한 공지를 보고 3월, 봄이 오려는 때지만 무림리 추위를 대비해 많이들 껴입고 모였습니다. 약속된 2시에 전체가 모여서 각 구역과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교육관과 자연예배당, 화장실, 식사 준비 등 지정해 주지 않아도 각자 맡아 알아서 합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교육관과 자연예배당, 화장실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널브러져 있는 나뭇가지를 모아서 작은 가지는 태우고 쓸만한 가지는 쌓아놓았습니다. 낙엽은 모아서 자루에 담기도 태우기도 하며 정리를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널 공동식사를 맛있게 하고자 즐거운 수다와 함께 나뭇 야무지고, 야심차게 썰고 삶으며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날씨는 쌀쌀한데 어른들 옆에서 아이들은 겉옷일랑은 벗어놓고 가벼운 옷만 입고도 추운지 모르고 뉘니다. 보는 어른들 눈만 촉습니다. '00야 잠바 좀 입어라' 잔소리하면서요. 지킴이를 마치고 새참시간도 있었습니다. 촉지만 모닥불 옆 데크에서 옷을 더 여미고 따뜻한 차와 함께 한 간식은 장영미사모님께서 너~무 너~무 맛있게 구우신 당근 케익이었답니다. 또 먹고 싶어서 레시피를 요청 했답니다. 찬양은 이근자사모님의 재치 있는 지도로 파트별로 연습을 재밌게 하고 앞으로 나가서 3절까지 다 불러봅니다.

전체모임에서는 정태일목사님의 진심어린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앙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삶과 일을 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하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신앙공동체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자녀 된 역할이 무엇이여야 하는지 제 자신에게 다시 질문하게 되는 날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공동체 식구들로 인해서 믿음을 지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정혜정 권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219장, 447장

성 경 : 디모데후서 2장 20-26절

말 씬 :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이 빠진 채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흘간 진행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한 채 5일(현지시간) 마무리되면서 '라마단 휴전'이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망자의 시신을 묻을 공간마저 부족하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 기독교 학교교육 연구소, 한국 교회에서 세운 대안학교, 기독교 사립학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기 시작을 잘 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지역별 방모임 시작
 - 2) 사랑방 공동체 학교 시작을 위해
 - 2) 공동체 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공동생활 식구들은 26주년이 되는 공동생활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지킴이와 식사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 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모두 함께 모여 공동의 일을 하니 한 식구임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관 단을 짝 채운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26년이라는 시간동안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방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장영미 전도사 >